

朝鮮刊本『佛說觀無量壽佛經』研究*

A Study on *Amitayurdhyana Sutra* published in Choson Dynasty

송 일 기 (Song, Il-Gie)**

◁ 목 차 ▷

- | | |
|--------------------|------------------|
| 1. 緒言 | 3.1 明板 翻刻本 系統 |
| 2. 觀無量壽經의 漢譯과 流通 | 3.2 後代 變容本 系統 |
| 2.1 강량야사의 한역과 내용 | 4. 黑田本과 石頭寺本の 比較 |
| 2.2 變相과 刊寫本の 유포 | 5. 結言 |
| 3. 朝鮮本の 刊行과 流傳 | <참고문헌> |

<초 록>

이 글은 중국 남조의 유송 원가 연간에 강량야사(量良耶舍)가 한역한 『관무량수경』을 대상으로 동아시아의 유포 양상을 살피고, 그 중 변상도가 수록된 명대 경태본과 조선본의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본경이 한역된 이후로 16관법의 내용을 도상으로 표현한 변상도가 돈황의 막고굴의 석벽에 등장하였으며, 필사본 형태로 널리 보급되었다. 그 후 북송 때 중국에서 처음으로 목판본이 간행되었으며, 명대 초기 1451년(景泰 2, 1450-1457)에 16관경변상도가 수록된 삽도본이 간행되었던 사실이 조선의 석두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실물자료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 경태본을 저본으로 3종의 번각본이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활자본과 언해본 등 다양한 형태로 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현전본이 없는 경태본은 변상도 부분만 사진자료로 남아 있어 석두사본과 검토한 결과 경태본과 동일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要語: 관무량수불경, 강량야사, 16관경도, 석두사, 실상사

* 이 논문은 2016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이 논문은 2016년에 중국 영파에 있는 천일각의 건치 4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改稿한 글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접수일: 2017년 3월 8일 ■ 최초심사일: 2017년 3월 15일 ■ 심사완료일: 2017년 3월 24일

<ABSTRACT>

This research deals with an aspect of distribution of *Amitayurdhyana Sutra*, which translated into Chinese by Kālayaśas during 424-453 in ancient China. Also it deals with bibliographic characteristic of *Amitayurdhyana Sutra* including illustrations by comparing Choson edition (published in Choson Dynasty) with GyeongTae edition(published in Ming Dynasty). After *Amitayurdhyana* translated into Chinese, the illustration of the Sutra depicting the contents of sixteen methods of contemplation appeared at stone wall of Mogao Caves in Dunhuang and then it had come into wide disseminated in a form of manuscript. Thereafter, a wood block printing had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Song Dynasty (960-1127). Moreover, the historical evidence has been identified that illustration edition containing sixteen paintings of the paradise of Amitabha had been published at early Ming Dynasty by Sukdu temple edition-being lost to the history-published in Choson Dynasty. However, it is revealed that by using Ming Dynasty edition (published in 1451) as a original script, not only three types of edition had been published but also it had been published as various forms such as a movable type edition, annotated edition in Korean and so on in Choson Dynasty.

Ming Dynasty edition printed in 1451 known as being lost to the history contains a part of illustrations as a picture material. As an examination result, it is determined that the illustrations in picture have high possibility identical edition with printed in 1451 by examining Sukdu temple edition.

Key words: *Amitayurdhyana Sutra*, Kālayaśas, sixteen paintings of the paradise of Amitabha, Sukdu temple, Silsang temple

1. 緒言

이 논문은 정토신앙의 핵심 경전의 하나인 『佛說觀無量壽佛經』¹⁾이 한역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포 양상을 조사하고, 특히 명대 초기에 간행된 원간본이 조선에 전래되어 유전되었던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불경은 중국 남조의 劉宋 元嘉 연간(424-453년)에 서역 승 瞿曇 耶舍가 한문으로 번역한 이후 정토종의 유행과 더불어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으로 널리 유포되었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역 이후 필사된 사본이 중국 서북지역 돈황의 장경동 石室에서는 20여 부가 넘는 수량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慧遠과 智顗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수·당대의 고승들의 註釋書가 찬술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도 통일신라 7세기 후반에 憬興과 義寂 등이 찬술한 주석서가 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시기에 한국에도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경전이 동아시아 국가에 유포 독송되면서 한편으로 이 경전의 내용을 圖像으로 표현한 〈觀經變相圖〉가 돈황석굴을 중심으로 석벽에 제작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종이와 비단에 제작되었다. 그리고 목판인쇄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북송에 와서 비로소 목판본이 처음 등장하였으나, 인쇄 초기에는 卷首에만 변상도가 있을 뿐 아직까지 16觀圖가 전면적으로 수록되지는 않았다. 이후 명대 초기에 이르러 景泰 2년(1451)에 經文과 함께 〈16觀經變相圖〉가 수록된 삼도본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때 간행된 景泰本은 현재 그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逸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에는 조선시대 간행된 목판본이 최소 5종 이상이 유전되고 있는 사실이 파악되고 있다. 이들 조선본은 명대 초기에 간행된 경태본을 저본으로 번각하거나 다시 복각한 판본과 이를 약간 變容하여 간행한 삼도본과 언해본이 남아 있다. 이는 단순히 明本을 복각 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선식으로 변용하여 보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사상적 혹은 미술사적 관점은 가급적 지양하고 서지학적 측면에서 『불설관무량수경』의 유포 양상을 중심으로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다.

1) 본경의 권수제 명칭은 ‘불설관무량수불경’인데, 간혹 ‘불설무량수불관경’과 ‘관무량수불경’으로 불리기도 하며 16장의 도상이 들어 있어 미술사에서는 주로 ‘16觀經圖’로 통칭하나, 일반적으로는 ‘관무량수경’으로 약칭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약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觀無量壽經의 漢譯과 流通

2.1 강량야사의 한역과 내용

본경은 일반적으로 『阿彌陀經』, 『無量壽經』과 함께 淨土三部經의 하나로 우리나라 정토신앙의 근본 경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觀無量壽佛經(Amitāyur-dhyāna-sūtra)’, ‘十六觀經’, ‘觀經’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이 불경은 南朝 송나라 元嘉 연간(424-453년) 사이에 역경 승 畺良耶舍가 한역하였다.²⁾

漢譯者 강량야사(Kālayaśas)는 서역에서 온 승려로 중국 이름은 ‘時稱’이라 한다. 그가 元嘉 元年(424)에 중국의 建鄴에 당도하니 송나라 文帝가 鍾山の 道林精舍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는 여러 경전을 학습하여 三藏에 통달하였으며, 특히 參禪을 전수했다. 도림사에 머물면서 『觀無量壽經』 1권 외에도 『觀藥王藥上二菩薩經』 1권을 한역했다. 그 뒤 江陵으로 옮기고, 사천 지방으로 다니면서 禪을 전파하다 世壽 60세로 입적하였던 역경승이다.

이 불경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부처가 王舍城의 耨闍崛山에서 여러 비구와 보살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설법한 것이다. 이때 인도 마가다국의 태자 阿闍世가 부왕인 頻毘沙羅를 가두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자 모후인 韋提希 왕후가 몰래 왕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어 겨우 목숨을 연명하였다. 왕후는 석가모니가 있는 왕사성의 기사굴산을 향해 지성으로 예배를 올리고 교화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이에 석가모니는 극락세계를 보여주고 16관법을 일러주어 왕비와 시녀를 깨닫게 하고 빈비사라왕을 구제하였다. 이에 왕비는 16관법 등의 법문을 듣고 생사를 초월한 無生忍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500인의 시녀들은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경에 따라서 戒律을 잘 지키고 수행하여 功德을 쌓는다면 모든 죄업을 소멸시켜서 淸淨하게 될 것이며, 죽을 때에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마중 나와서 극락세계로 인도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본경의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는 16관법은 지는 해를 보고 극락세계를 관하는 日想觀, 극락세계의 대지가 수면이나 얼음처럼 평탄함을 관하는 水想觀 등의 관법이다. 이 16관법은 극락을 보는 눈으로,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는 중생에게 용기의 눈, 관조의 눈을 길러주는 관법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상으로 표현하여

2) 본경은 강량야사의 漢譯 이전에도 이미 번역되었던 사실이 있는데, 중국의 불경목록에는 失譯되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그 성립에 대해서는 西域이나 中國에서 찬술된 僞經이란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藤田宏達, “觀無量壽經の撰述問題,” 『印度學佛敎學研究』 17-2(1968)).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觀經變相圖〉이다. 이 변상도는 중국 돈황의 막고굴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사이에 주로 왕실에서 불교미술의 소재로 삼아서 그린 변상도가 주로 일본의 사찰에 8점 가량 남아 있다.

이 관경도는 경전이 쓰이게 된 동기, 즉 비극적 사건을 서술한 序品만을 묘사한 관경서품변상도와 이 그림의 주제인 관경십육관변상도로 크게 구분된다. 이른바 〈觀經十六觀變相圖〉는 비극적 상황에 봉착한 위제희 왕비가 이 처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신 부처께 구원을 청하자, 부처는 극락정토의 여러 가지 장면, 즉 열여섯 가지 장면을 觀想하게 하고, 극락정토를 신통력으로 보여주어 왕비는 물론 시녀들까지 모두 구제해 주었다는 장면을 담고 있다. 관경십육관변상도는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모습과 함께 바깥쪽의 둥근 원들에는 설법하신 내용, 즉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 불경의 구성은 觀佛하는 16단계의 방법을 설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序分, 正宗分, 流通分으로 구분된다. 서분은 석가모니가 관경을 설하게 된 동기, 즉 왕사성에서 일어난 빈비사라 왕과 아사세 태자 간의 왕권을 둘러싼 비극으로 인해 왕비 韋提希가 부처님에게 구원을 요청한 사건을 말한다. 정중분은 본문에 해당하는데 석가모니가 비탄에 빠진 韋提希 부인에게 정토를 관상하는 13단계인 定善觀을 설법하는 내용이다. 유통분은 16관 중 14-16관인 散善觀을 말하는데 중생을 9품으로 나누어 정토에 往生하는 모습을 설한 것이다. 부처는 극락에 왕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세 가지 淨業을 닦을 것을 제시한 다음 극락세계를 관찰하는 16觀法을 설하였다. 이처럼 본경은 대부분은 16관법을 위주로 상술한 내용이다.

2.2 變相과 刊寫本の 유포

『관무량수경』은 중국 남조의 劉宋 元嘉 연간(424-453년)에 瞿良耶舍가 한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송은 東晉 말기의 權臣이자 武將인 劉裕(武帝)가 동진의 恭帝로부터 禪讓을 받아 세운 이후 60년간(420-479년) 존속한 나라이다. 한때는 황하이남 넓은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였을 정도로 부강하였으며, 수도를 지금의 南京인 建康에 도읍하였다. 유송의 원가연간에 한역된 이후 중국 남조를 중심으로 寫本으로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그 내용을 도상으로 표현한 변상도가 돈황석굴과 사원에 남아 있다. 그리고 북송 때 간행된 목판본이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유형에 따른 전체적인 유포 양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觀無量壽經의 流布 樣相

區分	中國	韓國	日本
寫本	• S0939, S1515(761年), S1703, S1783, S3115, S3243, S3695, S4763, S4842, S5798, S6497, S6764, 中研院04, 上博20(2), 甘博040, 津藝036, 074, 253, 254, 吉林省圖書館(唐), 大谷大97-3(鳴砂餘韻)	知恩院(14C寫經)	小林(734년), 五島慶太(1192년), 増上寺(1333년), 龍門文庫(1333년)
變相	• 壁畫-初唐: 45, 66, 113, 116, 120, 122, 148, 171(東), 171(南), 171(北), 172(南), 172(北), 176, 194, 208, 215, 217, 218, 320, 431, 446 • 中唐: 7, 44(南), 44(北), 91, 92, 112, 117, 126(南), 126(北), 129, 134, 154, 155, 159, 180(東), 180(北), 188(南), 188(北), 191, 197, 199, 200, 201(南), 201(北), 231, 236, 237, 238, 240, 258, 358, 360, 370, 379 • 晚唐: 8, 12, 18, 19, 20, 111, 132, 141, 144, 145, 160, 177, 195, 232, 337, 343, 473 • 五代: 22, 205, 334, 468 • 宋代: 15, 55, 76, 118, 449, 454, 大周石刻 • 絹本-英博: S.035, 037, 070(完) • 기메博: MG.17673(完), EO.1128(完)	高麗: 大恩寺(1312年), 西福寺, 隣松寺(1323年), 知恩院(1323年), 西福寺(14C), 法輪寺(14C) 朝鮮: 知恩寺(1435年), 知恩院(1465年)	阿彌陀寺(鎌倉), 長香寺, 圓照寺
板本	• 宋代: 崇寧本(溫州博物館, 1103年), 紹興本(浙江博物館, 1152年) • 明代: 景泰本(黑田源次舊藏, 1451年), 弘治本(四川圖書館, 1500年), 萬曆本(1583년), 天啓本(國家圖書館, 1621년)	朝鮮: 甲寅字覆刻本(朝鮮前期), 石頭寺本(1558年), 實相寺本(1611年), 內院庵本(1853年), 諺解本	

寫本の 유포 양상을 보면, 중국은 돈황 藏經洞 石室에서 유출된 사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스타인이 입수한 12부를 비롯하여 天津市 藝術博物館에 4부, 上海와 甘肅省博物館, 吉林省圖書館, 臺灣의 中央研究院, 日本 大谷大 등에 각 1부씩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모두 21부가 현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고려시대 14세기에 제작된 사경 1부가 일본의 知恩院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필사본은 그다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聖武天王의 하명으로 734년에 제작된 寫經 1부를 小林一三이 소장하고 있고 1192년에 제작된 사경 1부가 五島慶太가 소장하고 있는데 후대에 折帖裝으로 改裝하였다. 그리고 1333년 제작된 사경이 増上寺와 龍門文庫에 각각 1부씩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전역으로 사본이 유포되면서 거의 동시에 敦煌의 석굴에 變相圖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唐代에서 五代를 거쳐 宋代에 이르기까지 석굴에 제작된 관경변상도가 모두 83점으로 파악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 중 中唐 시기에 제작된 변상도는 무려 34점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사본이 본격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하였던 초당 시기에 제작된 변상도 또한 21점으로 비교적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대와 송대로 들어 와서는 급격히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³⁾ 이와는 달리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 紙本과 絹本 변상도가 제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견본 변상도는 비교적 양호한 자료가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3점, 그리고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2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고려시대 1312년에 제작한 변상도가 일본의 大恩寺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모두 8점이 일본의 사찰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일본에서 제작한 변상도는 長香寺 등에 3점만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 석굴에 변상의 제작이 쇠퇴할 무렵에 목판에 판각해서 간행한 목판본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송대 판본으로 北宋 1103년(崇寧 2)에 간행된 목판본이 지난 1965년 白象塔에서 수습되어 현재 溫州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또한 南宋 1152년에 간행된 목판본이 浙江省 麗水の 碧湖宋塔에서 수습되어 현재 浙江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⁴⁾ 이후 명대에는 景泰本(1451년), 弘治本(1500년), 萬曆本(1558년), 天啓本(1621년) 등이 차례로 간행되었으나, 모두가 편찬 방식이나 板式의 특징이 서로 다른 판본이다.

한편 조선에서는 문종 때 부왕 세종의 천도를 위해 왕실에서 사경이 조성된 사실이 보이며,⁵⁾ 명대 경태본을 수입하여 복각한 목판본과 언해본 등 5종이 간행되었다. 이 중 도상이 수록된 삼도본이 3종이며 경문만 있는 판본이 1종, 그리고 언해본이 남아 있을 정도로 널리 유포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경문만 있는 목판본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으나, 도상이 수록된 삼도본의 간행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3) 『敦煌大辭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8), 119-125.

4) 이때 『佛說觀世音經』 1卷(1116年刊)과 『佛頂心陀羅尼經』 3卷(1172년간)이 함께 收拾되었는데, 모두 卷首에 變相圖가 수록되어 있다.

5) 조선 제4대왕 世宗이 승하하고 1450년에 즉위한 文宗이 바로 父王의 追薦을 기원하기 위해 法華經 등 여러 불경을 寫經한 사실이 보이고 있는데, 이때 『十六觀經』 1권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文宗實錄』, 卽位年(1450) 4月 10日 條). 그러나 이때 寫成한 寫經本은 經名을 ‘觀無量壽經’이라 하지 않고 ‘十六觀經’으로 기재하고 있어 과연 이 사경에 16관경변상도가 수록되어 있는지 그 여부가 매우 궁금하다. 한편 日本 京都의 知恩院에 조선시대 조성된 사경 『說相十六經』이 소장되어 있는데, 비록 후반 일부가 유실되어 十圖만 남아 있으나 변상도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이다. 다만 사경의 天地부분에 龍紋이 그려져 있고 紅紙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국 명대 사경으로 추정된다. 이 사경의 변상도는 목판본 圖像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3. 朝鮮本の 刊行과 流傳

3.1 明板 翻刻本 系統

3.1.1 石頭寺本

이 목판본은 1558년(가정 37)에 황해도 兎山의 鶴鳳山에 소재하는 石頭寺에서 개판한 것이다. 이 당시 석두사는 조선전기에 黃州의 深源寺와 文化의 月精寺 등과 함께 황해도 지방에서 寺勢를 거를 만큼 제법 번창한 사찰이었다. 이 사찰에서는 1542년에 『禪宗永嘉集』을 개판한 것을 비롯해서 1559년 『結手文』을 간행한 것까지 모두 11종의 불서를 간행한 사실이 보이고 있다.⁶⁾ 여기에서 간행된 11종 모두가 임난 이전인 조선전기 명종연간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고 현재 폐사 상태인 것으로 보아 이 사찰은 임진 兵亂으로 燒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서의 책판 역시 당시 함께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 현전본이 극히 희귀한 상황이며, 자세한 서지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석두사본의 서지기술>

1冊(52張): 插圖, 四周雙邊, 半郭 25.0 × 15.5 cm, 有界, 7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32.7 × 19.5 cm.
插圖: 上圖下文
御製觀無量壽佛經序: 洪熙元年(1425)
後序: 大明景泰2年(1451)歲次辛未正月上元節... 釋道孚序
刊記: 嘉靖37年戊午(1558)潤7月日 黃海道兎山地鶴鳳山石頭寺留板

이 책의 권수에 명나라 仁宗昭皇帝가 1425년(洪熙 1)에 작성한 御製序文이 있고, 권말에는 1451년(景泰 2)에 萬壽禪寺의 住持 道孚가 쓴 後序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서문과 후서의 작성 시기가 무렵 26년의 시차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대 초기에 작성한 서문과 후서가 수록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석두사본은 명대 초기에 간행한 경태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석두사본의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경문과 함께 <16觀經變相圖>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문에 들어 있는 16관법의 내용을 상단에 도상으로 표현하고 하단에 4언의 偈頌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러한 편찬방식은 아래래도 석두사본의 모본으로 보이는 명대 초기의

6) 宋日基, “黃海道 寺刹 刊行佛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1호(2016. 2), 402.

경태본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번각하면서 권말에 판각과 인출 등 출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 施主秩과 이 개관 작업을 주관한 助緣과 刻手 등 緣化秩의 명단, 그리고 맨 끝에 刊記가 기재된 부분만 추가된 것이다. 이 책의 간행에는 助緣比丘 純默과 了圓이 과정을 주관하고 刻手 敬衍이 板刻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서문과 후서의 작성 시기가 상당한 간격을 보이고 있어 과연 언제 간행되었는지 그 시기가 의문이다. 그것은 인종의 어제서문에 “命工刊行此經而廣施之”라고 밝히고 있고, 도부의 후서에도 “捐貲命工, 印施五千四十八卷, 流通十方”라고 하여 각각의 간행사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서문을 작성한 洪熙帝는 영락제의 장남인 朱高熾(1378-1425년)로 사후 廟號가 仁宗이다. 그런데 그는 永樂帝가 北征 과정에서 1424년 급사하자 揚榮 등의 추대로 곧 바로 황위에 등극하였으나, 불과 재위 1년 만에 비만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인종은 父皇 영락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서문을 작성하는 등 불경의 간행을 주도하였으나, 즉위하자마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과연 서문의 내용과는 달리 간행의 완성은 보지 못하고 보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도부가 쓴 후서에는 인종이 서문을 지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5048권을 간행하여 세상에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이때 완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⁷⁾ 그러나 영락제 재위시기에 방대한 대장경의 조성과 『佛說阿彌陀經』, 『釋氏源流』 등 다양한 插圖本이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편찬은 이미 仁宗 때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석두사본의 권수에 수록된 〈御製序文〉은 洪熙帝가 1425년에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御製觀無量壽佛經序

蓋聞佛之道, 廣大無外, 光明畢照. 先天地而無始, 後天地而無終, 而其要以清淨爲宗, 利濟爲用, 其願力弘深, 拯拔無量, 蓋極乎億萬劫之前, 極乎億萬劫之後, 同一慈悲之念, 平等之施, 故自西土, 以入中國, 千有餘歲, 中國之人, 崇信其說, 遵奉其教, 蓋大其能仁之功也. 夫人生於血氣之中, 長於聲利之途, 耳目口鼻四肢之欲, 不能無也, 纏綿於愛憎, 展轉於枝求, 馳騁一時之快, 而駸駸流墮於三塗之苦, 佛世尊之垂, 憫乎此也, 開方便之門, 啓懺悔之科, 咸使得以捨妄而歸真, 滅罪而資福, 凡一切之人, 果能體清淨心, 發真實願, 一念歸誠, 有感必應, 熏梅檀於穢域, 出蓮萼於汙渠, 有不可名言之妙矣. 此觀無量壽佛經, 所以有益於世, 我皇考太宗, 體天弘道, 高明廣運, 聖武神功, 純仁至孝, 文皇帝, 皇妣仁孝慈懿, 誠明莊獻, 配天齊聖, 文皇后, 皆以上聖之資, 居至尊之位, 深仁大德, 涵育萬邦, 下至飛潛動植之類, 莫不熙熙, 自遂於泰和之世. 然二聖, 未嘗以是自足, 所以心佛之心, 廣佛之教, 嘉惠天下者, 至矣. 若觀無量壽佛經, 皇考嘗欲表章之, 未就而六御上賓, 宸遊在天, 哀慕無極, 用敢追成皇考聖志, 命工刊行此經, 而廣施之, 蓋欲使天下後世, 至于無窮之人, 皆知歸誠佛道, 有過者, 圖改以自新, 好善者, 益勉而自進, 皆遊如來之境, 樂如來之福, 且以上資, 皇考皇妣, 在天之福於無窮焉. 謹序諸其簡端云.

洪熙元年正月初一日

7) 道孚의 後序에 “捐貲命工, 印施五千四十八卷, 流通十方”이라 하여 마치 5048권을 간행하여 널리 유포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실은 5048권의 의미는 당대 智昇이 편찬한 『開元釋教錄』에 수록된 經律論〈三藏〉의 수량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많아야 200部 정도를 印出하였을 것이다.

또한 석두사본의 後尾에 수록된 〈觀無量壽佛經後序〉는 道孚가 1451년에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觀無量壽佛經後序

西方無量壽佛, 慈仁博愛, 悲願宏深, 與觀世音大勢至二菩薩, 爲三友之導師. 接引群情, 徑超極樂世界, 彼世界, 七寶莊嚴, 寶地寶池, 八功德水, 百寶蓮華, 寶雲寶殿, 寶樹行列, 諸天寶慢, 彌覆其上, 衆寶瓔珞, 塞滿空中, 而尤水鳥樹林, 皆悉演唱苦空, 無常無我, 諸波羅密, 故出廣長之舌, 讚嘆而弗能及也. 然凡群情之所想念, 眞實, 欲生彼國, 而無不生者矣. 諦詳此佛說無量壽佛經, 所談十六妙觀, 蓋觀者, 將心隨境, 名之曰觀, 攝境歸心, 名之曰觀, 其最深妙, 諸祖弗傳之要道也. 誠欲群情, 依之修行, 脫或漸次增進, 則心無不悟, 佛無不成矣. 洪惟我太宗文皇帝, 愍念群情之意, 嘗欲表章之, 仁宗昭皇帝, 製斯經之序, 有曰凡一切之人, 果能體清淨心, 發眞實願, 一念歸誠, 有感必應, 以之所謂有益於世也. 大哉, 皇言乎. 心佛之心, 廣佛之教, 至矣盡矣. 今中貴官劉普傑, 孳孳爲善, 念念修因, 逢此眞乘, 深生希遇, 絲是, 捐貲命工, 印施五千四十八卷, 流通十方, 亦可謂體先聖普濟之心, 祝皇上無量之壽, 恩無不酬, 德無不報, 民康物阜, 雨順風調, 而法界群生, 無不蒙益, 於過現未來也. 功莫大焉. 暇日謁余, 以爲後序, 以紀歲月之端, 其諸奧義, 具載本文云.

大明景泰二年歲次辛未正月上元節僧錄司左講經兼賜萬壽禪寺住持築壇傳戒壇主沙門金陵釋道孚序

후서를 쓴 道孚는 본래 속성은 蔣氏로 江浦 출신으로 자는 知幻이다. 그는 30세의 나이에 金陵(현 南京)의 靈谷寺에서 출가하여 55년 동안 佛道를 수행하고 85세로 入寂하니 萬壽祖師라 賜號하였다. 이와 같이 석두사본에는 명나라 洪熙帝의 序文과 萬壽禪寺 住持 道孚의 後序가 수록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景泰本을 저본으로 飜刻한 판본으로 보인다.

3.1.2 實相寺本

본서는 1611년 전라도 扶安의 楞迦山 實相寺에서 복각 간행한 판본이다. 실상사는 전라북도 부안의 內邊山에 소재하였던 사찰로 멀리 신라시대 창건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지금은 폐허 상태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전쟁 이전 日帝強占期 시절에 이곳 사찰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에서 조선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처음으로 讚佛歌를 한글로 찬술하여 한글 금속활자로 인쇄한 『월인천강지곡』이란 국보급 전적문화재가 수습된 바 있어 주목되었던 사찰이다.

이곳에서 간행된 實相寺本은 앞에서 살펴 본 石頭寺本과 7행16자의 板式과 圖像의 형식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그대로 번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차 복각하였기 때문에 석두사본에 비해 정교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권수에는 1425년에 명나라 인종이 작성한 어제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1451년에 명나라 萬壽禪寺의 주지 道孚가 쓴 後序가 수록되어 있어 번각한 것은 분명하다. 재차 번각으로 도상과 字體의 모습이 조금 상이해 보이나 전체인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권말의 施主秩과 緣化秩, 그리고 刊記만 새로 교체한 상태이다. 간행은 민간인 신분의 居士 申守介가 化主로 참여하여 주관하고 刻手 應新이 판각하였다.

3.2 後代 變容本 系統

3.2.1 內院庵本

본서는 1853년 경기도 三角山의 內院庵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삼각산은 지금의 서울시와 고양시에 걸쳐 있는 北漢山의 이칭으로 白雲峰, 晚境峰, 仁壽峰이 삼각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여 조선시대에는 주로 이 명칭으로 불렸다. 불경을 개관한 내원암은 간기에 삼각산에 소재하였던 사찰로 알려져 있으나, 그 후 폐허가 되어 지금은 그 곳의 위치조차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성북구 貞陵 계곡에 소재하는 內院寺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근거로는 현재 내원사에는 1859년(咸豐 9)에 제작된 〈白衣大士佛圖〉 목판이 전해오고 있는데, 이 목판을 판각한 곳을 ‘三角山內院庵’으로 板刻되어 있으며, 또한 조선 후기 19세기 전반에 金正浩가 제작한 〈首善全圖〉에도 내원암이 현재 내원사가 있는 곳과 같은 위치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내원암본은 〈佛圖板〉이 제작되기 불과 6년 전에 개판되었으므로 그 위치가 비교적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내원암본의 서지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원암본의 서지기술>

1冊(37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20.5×15.5cm, 有界, 半葉 10行20字, 上下2葉花紋魚尾.
 插圖: 前文後圖
 御製觀無量壽佛經序: 洪熙元年(1425)
 後序: 大明景泰2年(1451)歲次辛未正月上元節… 釋道孚序
 刊記: 咸豐3年癸丑夏三角山內院庵開刊

상기 서지사항으로 보아 판식의 특징이 석두사본과는 전혀 상이한 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수록된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판식만 후대 변용된 판본이다. 이 책은 권수에 명나라 인종이 1425년(洪熙 1)에 작성한 어제서문이 수록되어 있고 서문에 이어 〈16관경변상도〉가 보이고 있으며, 이 관경도 다음에 『불설관무량수불경』의 경문이 나타나고 경문이 끝나는 말미의 卷末題 다음 장에 1451년(景泰 2)에 만수선사 주지 道孚가 쓴 후서가 부록되어 있는 체제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권말에는 16관법

의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主上殿下로부터 王室내의 여러 大妃들의 長壽를 발원하는 祝願文과 豐壤趙氏 일족의 極樂往生을 기원하는 靈駕文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祝願文〉	主上殿下李氏(哲宗)辛卯生聖壽萬歲 王妃殿下金氏(金汝根의 딸)丁酉生聖壽萬歲 太上王大妃金氏(金祖淳의 딸)己酉生聖壽萬歲 大王大妃趙氏(趙萬永의 딸)戊辰生聖壽萬歲 王大妃洪氏(洪在龍의 딸)辛卯生 聖壽萬歲
〈大施主〉	豐恩府院君趙公萬永·坤命恩津宋氏 靈駕 奎章閣提學趙公秉龜·坤命安東金氏 靈駕

조선후기 正祖의 사망으로 그의 뒤를 이은 純祖로부터 憲宗과 哲宗으로 이어지는 시기 동안 安東金氏와 풍양조씨 등 권문 세도가가 정치를 주도하는 勢道政治가 50여 년 동안 지속하였다. 축원문과 시주질에 기재되어 있는 인물을 살펴보면, 내원암본은 당시 권문세가인 豐壤趙氏의 시주로 간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대시주로 기재되어 있는 조만영과 조병귀는 부자 관계인데, 1827년 순조가 병세로 왕세자인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을 趙萬永(1776-1846)에게 위촉하자 그는 딸(후일의 神貞王后 趙大妃)을 세자와 혼인시켜 세도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그의 외손인 현종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자 순조비(純元王后, 金祖淳의 딸)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권세가 안동김씨도 넘어 갔으며, 현종이 후사가 없이 사망하자 한미한 왕손인 철종을 왕위에 올리고 金門의 세도를 이어 갔다. 이처럼 축원문과 시주질에는 당시 권문세가의 영욕의 흔적이 잘 投影되어 있다.

후면에는 이 불경의 간행 작업에 緣化秩과 禪德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목판을 가공하는 연판 과정은 金鼎秀가 주도하였으며, 刻手에는 文敬淳 등 12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 승려가 아닌 民間人 身分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末行에는 ‘咸豐3年癸丑夏三角山內院庵開刊’이란 刊記가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이 1853년 삼각산 내원암에서 개판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권수와 권말에 수록된 서문과 후기는 앞서 간행된 석두사본과 비교해 보면 글씨의 字體가 많은 차이를 보이며, 특히 16관경변상도는 앞쪽에 시문을 뒤쪽에 도상을 배치한 ‘前文後圖’ 형식으로 ‘上圖下文’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나 형식상으로는 크게 변화된 것으로 보아 내원암본은 석두사본을 저본으로 그대로 복각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 특징만을 새롭게 변용한 판본으로 보인다. 특히 변상도의 제작에는 19세기 후반에 서울과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명한 畫師 스님인 中峯堂 慧皓가 밑그림을 새로 그렸으며, 南湖堂 永奇와 永洽 스님이

化主가 되어 간행을 주관하였다.⁸⁾

3.2.2 諺解本

이 책은 『관무량수경』의 언해본으로는 유일한 자료이나, 간기부분이 없어 간행시기를 알 수 없다. 앞표지의 내면지에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지낸 방중현 선생이 본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메모지가 붙어 있는데, 이를 통해 본 자료는 이병직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고서상 이성의의 중개로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6월 11일에 1만1천원에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언해본은 앞에 소개한 3종의 불서와는 달리 <16관경도>는 빠져 있으나, 그 대신 『월인석보』 권8의 언해 내용을 순 한글로 전재하였다. 권수에는 景泰本에 있는 명 홍희제의 ‘御製序文’을 그대로 전재하였으며, 이어 권수제 ‘佛說觀無量壽佛經’이 보이고 그 다음 행에 역자표시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본문이 시작되는데, 앞의 서분은 한문으로 그대로 두고 정종분의 16관에 대해서는 앞쪽에 한문을 그리고 다음에는 그에 해당하는 언해문은 『월인석보』 권8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유통분은 서문과 동일하게 한문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본문이 끝나고 권말제 아래에는 ‘언해문은 釋譜 중에 있는 것을 달았으니 의심을 내지 말 것이다 (諺解在釋譜中, 隨觀注於本文之下, 見之勿疑)’라는 기록을 첨부해 놓았다. 권말제 다음에는 원간본에 있는 <16관법>에 대한 偈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16관마다 7언 4구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맨 마지막부분에 왕실의 장수를 기원하는 발원문이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이 경의 언해문과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감추고 드러내며 또 증감한 부분도 있으나 그 내용만은 억담은 아니다(詳看此經諺解眞書, 雖玄顯增減此是本, 文非今臆談也)’라는 기록이 또한 첨부되어 있다. 이처럼 이 책에 첨부된 내용으로 보아 언해의 형식이 여타의 불서와는 다르게 성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판식의 특징으로 보아 대략 18세기 후반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3.2.3 初鑄甲寅字覆刻本

본서는 초주갑인자본을 복각한 판본인데, 다른 기관의 소장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유일본으로 보인다. 이 책은 원간본의 복각본인 석두사본과는 달리 중국에서 작성한 서문과 발문,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시주절이나 간기 등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원간본에 있는 변상도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오로지 『관무량수경』의 경문 내용만

8) 朴挑花,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7), 91-102.

으로 편성되어 있다. 권수제는 ‘佛說觀無量壽佛經’으로 동일하며 다음 행에 한역자 ‘晁良耶舍’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행부터 경문의 내용이 시작된다. 판식은 초주갑인자본을 저본으로 복각하였기 때문에 금속활자본의 특징이 잘 드러나 보인다. 기본적인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조금 굵게 새겨져 있으며, 판심부에는 임란 이전에 간행된 판본의 특징인 상하 대흑구와 상하 내향 흑어미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경문의 글자가 상하 간에 활자본처럼 일정하게 간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초주갑인자의 자체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지질의 특징과 몇몇 특징자에 한정해서 일부 補字가 빈출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란 직전인 대략 16세기 중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4. 黒田本과 石頭寺本の 比較

조선시대 명대 초기본을 번각한 석두사본의 모본으로 보이는 원간본이 逸見梅榮이 편저한 『滿蒙北支の宗教美術』 제8권의 〈불교미술편〉(圖161-168)에 변상도만 수록되어 있다. 해당부분의 맨 앞에 변상도의 전체적 개요를 소개하고 있는데, 해설 제목을 〈大智律師禪觀圖〉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黒田源次氏所藏’이라 하여 본서의 소장자를 밝혀 놓고 있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이 책은 지금의 내몽고와 중국 북부지역에서 수집한 종교미술에 관한 사진자료를 모아서 1943년 동경의 丸善出版社에서 발행한 전집물인 것이다. 그 중 〈16觀經變相圖〉는 제8책의 佛教美術篇에 寫眞8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 사진자료의 원본 소장자인 黒田源次(구로다겐지)는 일본이 패망한 이후 귀국하여 奈良博物館長으로 근무하던 중에 향년 70세로 사망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1886년(明治 19) 熊本市에서 태어나서 京都大學 文學部에 입학하여 心理學을 전공하였으며,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醫學部에서 生理學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문부성 장학생으로 인도와 독일 베를린에서 연수를 마치고 1926년부터 滿洲醫科大學 교수로 생리학고실에서 근무하였다. 일본이 패망한 이후 일본으로 귀국하여 1947년 東京帝室博物館 囑託을 거쳐 奈良博物館長과 文化財研究所長을 겸직하였다. 그는 전공 외에도 주로 중국의학사를 비롯하여 고고학과 미술사 등 역사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다.⁹⁾

이러한 경력을 지닌 黒田源次는 만주대학 의학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국 醫書와 考古遺蹟 등에 대한 논문을 주로 『滿洲史學』 등의 학술지에 투고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1938년에는 『中國板

9) 『日本美術年鑑』 昭和33年版, p.162.

畫史概觀』이란 논고를 일간『東方文化』에 2회에 걸쳐 연재한 사실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¹⁰⁾ 이
論考는 中國板畫史라는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이 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 판화사
와 관련된 자료를 다수 수집하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무렵 바로 <16관경변상도>가 수록된 插圖本
『觀無量壽經』도 입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수록된 사진자료가 조선에서 간행된
석두사본의 母本이며 명대 초기에 간행된 景泰本과 동일한 판본인지 그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변상도는 제161도에서 제168도까지 모두 8장에 불과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본래
각 1장마다 3절로 折帖한 것으로 실은 24折로 구성되어 있는 折帖裝本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黑田本에 보이는 변상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黑田本 16觀經變相圖와 石頭寺本 對比

圖次	變相題目		偈頌	朝鮮本
第161圖	靈山衆會		耆闍山沒 王宮中出 事畢還歸 阿難重述	우측 一
	韋提請法		禁閉突宮 發起大事 濁惡重生 于今受賜	좌측 雲紋
	第一日觀		落日懸鼓 出生死路 十二時中 繫念一處	우측 二, 三
第162圖	第二水觀		大水澄清 凝然氷結 表琉璃地 內外映徹	중앙부분 접힘
	第三地觀		琉璃地上 莊嚴衆相 了見分明 除疑破障	
	第四樹觀		行樹七重 珠網華宮 清陰垂布 妙好無窮	우측 四
第163圖	第五池觀		八池德水 七寶妙色 蓮開鳥鳴 洗除煩惱	
	第六總觀		樓中天樂 讚佛法僧 寶樹地池 一念圓成	우측 五
	第七座觀		大蓮華座 百寶嚴飾 微妙難思 法藏願力	
第164圖	第八像觀		託像凝眞 見眞忘像 三聖炳然 尙名毘想	우측 六
	第九佛觀		觀佛相好 一經宗要 三昧現前 始知深妙	
	(第)十觀音觀		光臨五道 佛立頂冠 聞名獲福 何況諦觀	우측 七
第165圖	(第)十一勢至觀		光通諸佛 力救群苦 頂竝盛光 普現佛土	
	(第)十二普觀		趺坐蓮中 蓮華開合 依正莊嚴 一切俱攝	우측 八
	(第)十三雜觀		卓乎池上 一丈六像 變現大小 了無定相	
第166圖	第十四 上輩觀	上品上生	三心圓發 諦理突明 金臺隨往 卽證無生	우측 九
		上品中生	達諸法空 了無驚動 有願卽生 不必讀誦	
		上品下生	但發道心 未窮妙理 到彼開明 獲菩提記	
第167圖	第十五 中輩觀	中品上生	諸戎久持 往生如願 聞說苦空 得阿羅漢	우측 十
		中品中生	一日一夜 奉戒願求 蓮開見佛 卽預聖流	
		中品下生	孝友仁慈 知識開悟 遇二菩薩 開法得度	
	第十六 下輩觀	下品上生	生平積惡 死遇良師 一稱佛號 生寶蓮池	우측 十一
		下品中生	毀戒業深 獄火俱至 開法回心 衆聖迎去	
		下品下生	十惡五逆 臨終苦逼 教稱十念 蓮華金色	
第168圖	位太天尊像/經牌			우측 十二

10) 黑田源次 著, 傅芸子 譯, “中國板畫史概觀,” 『東方文化月刊』 1卷3, 4期(1938), 13.

이상의 <16관경변상도>는 석두사본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관각되어 있으나, 하단에 배치한 偈頌의 書體가 흑전본에는 寫經體字가 간혹 보이고 있어 좀 더 古拙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명대 모본이 折帖本인데, 이를 조선에서 線裝本 형식으로 편집하여 飜刻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우측에 2-3장으로 표시된 장에는 제1도에서 제3도까지를 한 장으로 처리하다 보니 第2水觀圖가 중앙에 걸쳐 있어 보기가 곤란한 상태이라는 점이다. 그 밖에는 半葉을 기준으로 그림을 한 장면씩을 배치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권수의 설법장면과 후반의 阿彌陀三尊圖와 天人伎樂圖 등은 선장 형식으로는 쉽게 펼쳐 볼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흑전본 제161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도상 아래 <靈山衆會>라는 제목 앞쪽에 ‘大智律師元照頌’이란 기록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석두사본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본래 명대 모본에는 새겨져 있는 것을 번각하면서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 소장자(黑田源次)가 墨書로 보충해서 기록한 것인지 사진으로는 판독이 곤란한 상황이다. 그런데 흑전본을 해설한 사람은 이를 근거로 변상도의 명칭을 ‘大智律師禪觀圖’라고 하였는데, 해설의 내용을 보면 그 역시 이 변상도가 『관무량수경』에 수록된 16관경도라는 사실은 잘 인지하고 있다.

대지율사(1049-1116)는 諡號에 보이는 바와 같이 북송 후기에 활동했던 율사로 법명은 元照이며, 고려의 대각국사 義天이 入宋시에 교류가 있었다. 그는 중병을 얻어 天台 智顗의 <淨土十疑論> 등 정토 관련 서적을 두루 독서하고 善導(613-681) 화상의 영향을 받아 오직 염불에 정진한 이후 『觀無量壽佛經義疏』 3권을 남겼다. 이후 원조의 義疏는 송대 이후에 제작된 <16관경변상도>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插圖本 圖像의 하단에 수록된 偈頌은 바로 대지율사가 남긴 4言4句 형식의 禪詩이다.

5. 結 言

이 『관무량수경』은 중국 남조의 劉宋 元嘉 연간에 강량야사가 한역한 불경이다. 이 불경이 한역된 이후로 16관법의 내용을 도상으로 표현한 變相圖가 돈황의 막고굴의 석벽에 등장하였으며, 筆寫本 형태로 널리 보급되었다. 그리고 북송 때 처음으로 목판본이 간행되었으며, 명대에는 초기부터 16관경변상도가 수록된 插圖本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에서도 <觀經變相圖>와 筆寫本, 그리고 木板本이 다수 유통되었던 사실로 보아 동아시아에 널리 流傳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자료는 경문과

함께 16관경도가 수록된 목판본인데, 이는 명대 초기 경태 2년(1451)에 간행된 이후 이를 翻刻한 판본이 조선에 유전되고 있는 插圖本이다. 이 삽도본에는 명나라 洪熙帝가 지은 어제서문과 명나라 승려인 道孚가 쓴 후서가 수록되어 있어 명대 景泰本을 저본으로 번각한 목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 번각할 때 저본으로 사용된 원간본에 해당하는 경태본은 현재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간행 이후 逸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조선에서는 이를 번각한 석두사본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다시 이를 복각한 실상사본, 그리고 이를 變容해서 간행한 내원암본과 언해본 등 다양한 목판본이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경태본과 가장 근접한 자료로 보이는 사진자료를 발견하였는데, 그 원본은 일본인이라 나라박물관장을 역임한 구로다겐지(黒田源次) 씨가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마 이 책은 구로다겐지가 만주에 거주하면서 수집한 자료일 것인데,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하면서 급히 귀국하는 과정에서 遺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景泰本을 번각한 석두사본과 흑전원차가 소장했던 사진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호간에 친연성이 보이는 母子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흑전본이 명대 초기에 간행한 景泰本과 가장 근접한 판본으로 보이나, 흑전본은 현전 여부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황해도 학봉산 석두사에서 번각 간행한 판본이 최고본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朴桃花, 『朝鮮 前半期 佛經板畫의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 李承禧, 『高麗後期 淨土佛教繪畫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2011.
- 敦煌研究院 編, 『敦煌遺書總目索引新編』, 北京: 中華書局, 2002.
- 『敦煌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8.
- 『聖地寧波』,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9.
- 申國美 編, 『中國散藏敦煌文獻分類目錄』,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
- 逸見梅榮 編, 『滿蒙北支の宗教美術』(第8篇), 東京: 丸善, 1943.
- 田中塊堂 編, 『日本古寫經現存目錄』, 京都: 思文閣, 1973.
- 周燕, 『中國版畫史圖錄』, 1983.
- 金廷禧, “1465年作 觀經16觀變相圖와 朝鮮初期 王室의 佛事,” 『講座美術史』 19(한국미술사연구소, 2002).
- 柳麻理, “麗末鮮初 觀經十六觀變相圖,” 『미술사학연구』 208(한국미술사학회, 1995).
- 藤田宏達, “觀無量壽經の撰述問題,” 『印度學佛敎學研究』 17-2(1968).

[부록] 흑전본과 석두사본의 비교

흑전본



석두사본



<권수 변상도>

흑전본



석두사본



<아미타삼존도(제14-15도)>